

기도

1. 믿음으로 영의 눈이 떠지기를 기도합니다.
2. 담임 목사님과 교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눔

1. 환경이 막혀있을 때 당신은 달음질 하고 있습니까?
2. 믿음을 말과 행동으로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신앙

바이블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딤후3:16)

바이블로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께 나아가 만나는 길입니다. 그리고 오직 성경을 외치며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종교개혁처럼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의미입니다.

구역 공과

2021년 1월 3일

바디매오가 눈을 뜸

오라 우리가 여호와와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사야 2장 2-4절)



바디매오가 눈을 뚫

마가복음 10장 46-52절 (28장, 384장)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 맹인이자 거지인 디매오의 아들 바디매오가 길가에 있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예수님을 소리 질러 불렀습니다. 그 때 예수님이 바디매오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사모함으로 믿음을 써서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바디매오가 예수님께 나아간 말씀입니다(46-50절).

바디매오는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아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고백했습니다.

구약 성경은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한 왕이 나시고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다스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사9:6, 7; 11:1; 렘23:5, 6). 그리고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눈으로 보고 경험했지만, 진리를 바로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완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막10:35). 하지만 바디매오는 눈이 보이지 않았어도 진리에 대한 눈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릴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진리에 대한 눈을 뜨지 못하면 두렵고 의심이 와서 믿음으로 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영의 눈이 떠져서 진리를 바로 보고 깨달으면 담대한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져서 사모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디매오는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거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부를 때도 사람들이 막아버리는 환경이었지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나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환경을 핑계로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을 때가 있지만, 진짜 문제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사모함과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실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때로는 환경을 막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막히는 것도 은혜이고 막힌 환경이 열려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는 자신을 자책하면서 사명을 내려놓고 어부의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막힌 환경 가운데 사모함으로 믿음이 자라서 주님을 만났을 때 자신을 올바르게 깨달아서 믿음을 고백하고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환경이 막힌 것은 멈추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달음질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0절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환경이 막혔다해서 변명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막혀도 믿고 찾으면 길을 열어 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은혜 베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디매오는 예수님이 부르실 때 자신의 전부인 겹옷을 버리고 뛸 수 없는 상황에서 뛰어서 예수님께 갔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했을 때 눈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은혜 받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나 정성, 마음들을 잠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더라도 은혜를 사모하면 더 귀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맹인의 눈을 고쳐주신 말씀입니다(51, 52절).

예수님이 바디매오에게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디매오가 비록 맹인이고 거지였지만, 사람들 앞에서 고침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고백하기 원하셨습니다. 바디매오는 주변 환경에 상관없이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믿음을 고백할 때 곧 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마음으로 믿고 말이나 행동으로 나타낼 때 온전한 믿음으로 역사합니다. 예수님은 바디매오가 자신의 믿음으로 고침 받았다는 것을 가르쳐주시기 위해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이 구원을 받았고 심령이 살아난 증거로 육체가 온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으로 믿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고백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심을 깨닫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에게는 이미 하나님 자녀의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심령이 살면 모든 것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줄로 믿습니다.

맺 음 말

그러므로 믿음으로 영적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사모함과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막히면 오히려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향해 달음질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은 것을 말과 행동으로 나타낼 때 예수님께서 반드시 약속한 것을 이루시며 심령이 회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